

총신대서 시국선언 “체제 전쟁… 자유 잃으면 예배도 위험”

‘자유대한민국 사랑하는 총신인’, 사당캠퍼스 앞에서 “탄핵 반대”

최근 여러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총신인’은 6일 서울 총신대 사당캠퍼스 앞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사기탄핵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순서로 김선규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이 기도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중도에서 머뭇거리며 미지근한 신앙을 견지하는 이들에 대해 눈물을 흘리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질서가 아니라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총신대 구성원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송준엽 신학과 19학번 학생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말씀으로 조선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했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껏 한 사람을 대

령으로 만들려 29번 졸탄핵 등 입법 폭거를 벌여 행정부를 마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진보연합단체의 오늘 집회 방해에도 경찰의 수수방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심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등 법치주의 파괴 현상이 벌어지는 이때 교회는 반국가세력과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세상적 불이익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기도하고 행동하자”고 했다.

김도원 사회복자학과 21학번 학생은 “참정권은 국민 주권의 일환으로서 보호 받아야 한다. 작년 투표에서 내 투표가 비밀봉지로 옮겨지는 광경을 보면서 부정선거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대만도 선거만큼은 수개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투표지가 선거함에 제대로 들어갈 때까지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희승 신학과 25번 학생은 “대한민국은 무정부상대다.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등 악법을 쏟아냈다. 간첩법 개정안 반대로 중국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며 “현재는 TF팀의 폭주각시 노릇을 하는 등 불공정한 심판



신학도들도 ‘시국선언’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 측 총신대 학생들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산 신학과 25학번 학생은 “총신대는 1901년 마펫 선교사가 세운 학교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상의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총신 출신이 5명”이라며 “이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 오늘 우리도 국가 존망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

라 어둠과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라며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바라 했다. 공산화나 자유냐의 기로에 놓인 이때 우리는 기독교를 말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적절해야 한다.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이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교회들은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요한 총신대 명예교수(역사신학)는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다. 진리는 하나다.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성경에는

‘예 또는 아니요’만 나왔다. 중간은 없다”며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애국지사가 되자. 공산화가 된 이후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때는 죽음뿐이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자. 깨어나 윤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무효가 되도록 행동하자”고 했다.

112기 신학대학원 졸업생 이순종 목사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위대한 가치를 망각했다. 자유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이

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폭거를 일삼았고 그 방향은 공산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무엇보다 적절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며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118기 신대원 졸업생 김선전 전도사는 “종교의 자유를 잃은 홍콩처럼 될 위기에서 총신대는 평양신학교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의 가치를 농축한 헌법 정신으로 운영되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정치적 성향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총신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도원 총신대 학생은 본지에 “일반 대학교 학생들이 앞다퉈 시국선언을 개최하는 이때, 신학생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서요한 은퇴교수는 “현 탄핵정국은 체제 전쟁이다. 기독교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하나님은 공의를 원한다. 내가 죽고 불의에 목소리를 내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교회 건축 펌뮈 말고 다음세대·불신자 위한 공간으로”

임병선 목사, 미래목회포럼 3월 포럼서 ‘건축 패러다임 전환’ 제안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이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월 포럼을 진행했다. 임병선 목사(용인제일교회)가 ‘3040세대 부흥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임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다음세대 성장이 멈추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 건축에 대한 펌뮈”라며

“용인제일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공간에 대한 무시 때문에 3040세대가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건물과 공간은 좀 더 파격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며 “다음세대와 불신자들이 오고 싶고 찾고 싶어하는 교회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임 목사에 따르면 대부분 교회 건축은 기존 기성세대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있다. 다음세대와 불신자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선 일단 교회 공간 안으로 들어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 건축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목사는 “3040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그들



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을 위한 교회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교회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지역 사회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는 현재 한국교회 구조상 이런 획기적 변화가 잘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임 목사는 “다음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 당연히 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 구조가 공고하다. 그래서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임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뭔가는 해보고 몸부림쳐야 한다”며 “실사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교회가 다른 것을 해 볼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



임병선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일 것”이라고 했다.

강의 후 고명진 목사(이사, 수원중앙침례교회), 임시영 목사(신행위원, 신수동교회)가 논찬했다. 고명진 목사는 임 목사 강의에 대해 “교회 건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목회철학이 담긴 시의적절하고 도전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임시영 목사는 임병선 목사의 강의 내

용에 동의하면서도 “실용성과 다목적성만으로 교회 건축이 될 수는 없다. 그 결과로 인해 사람들 모이겠지만, 그들에게 교회만의 경건성 등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총평한 이동규 목사(직전 대표, 청주순복음교회)는 “기독교를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 주축이 되는 권력을 3040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강의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미래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는 “한국교회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이 3040세대 부흥에 관한 것”이라며 “오늘 포럼이 어떻게 그들을 신앙 가운데 세우고, 현재와 미래의 주역들로 세울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포럼 사회는 장이규 목사(신행위원, 천호제일교회)가, 기도는 정귀석 목사(평화통일위원장, 주평강교회)가 각각 맡았다. 김진영 기자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 수호하는 체제” >> 3면

JB포럼 창립총회, 신임 상임대표 손영철 목사 >> 7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예정), 45층 1,072세대 랜드마크 프리미엄!

금정역, 곧 변화의 시작!

총 1,072세대 59㎡ / 76㎡ / 84㎡ / 95㎡ 지하 2층 ~ 지상 45층 8개동 시공시착 무공해실적 시행위탁 서해종합건설 시공 대우건설

■ 위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346-3(지하도면)대우빌딩 911동(동)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이미지는 소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업승인 과정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 및 시공시착은 무관합니다. (개발계획 2024년 10월 자료기준)

대우건설 서해종합건설

안양천 힐링라이프 GTX-C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예정), 인덕원~동탄선 호계역(예정)의 미래비전까지 푸르지오그랑블에서 모두 누립니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59㎡ Type 분양마감!!
76㎡ Type 마감임박!!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1599-9399

창조세계 회복 위한 신학과 과학의 과제는?

유정철 교수, 제59회 창조론온라인포럼서 발제



유정철 교수(전 경희대 생물학사학과)가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 59회 창조론온라인포럼에서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신학과 과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무신론자와 맹목적 진화론자는 생물 계통수 등 검증할 수 없는 생물종의 변화를 통한 진화를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며 “이들의(무신론자와 맹목적 진화론자) 사회경제·정치적 운동과 내러티브(실제 또는 허구 전달 수단)에 대한 창조론자의 대응 방법과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신학과 과학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며 “진화론 관련 용어 이해와 사용이 필요하며, 둘째로 진화론은 과학세계이며, 창조론은 신앙 세계라는 통념을 부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진화이론의 인문·사회 분야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 넷째로 무신론과 진화론의 확대 과정의 이해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진화 이론으로 자연생태계와 사회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진화론자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쟁에 바탕을 둔 자연선택설로 생태계와 사회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며 영국의 동물행동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1941~)와 미국 고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 1941~2002)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 유 교수는 “유신진화론자로 저명한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S. Collins, 1950~)는 그의 저서 『신의 언어』를 통해 창조론과 진화론이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며 “계놈(생물체를 구성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자의 집합체)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도 다른 생물들과 조상이 같다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한 “생물들 간의 유사성에 대해 무신론자들은 진화의 증거라고 소리를 높이지만, 콜린스는 이러한 생물 계보 사이의 유사성은 신이 훌륭한 설계 원리를 반복

해 사용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신론자들이 종교에 대해 공격하는 3가지 논거에는 먼저, 진화론으로 생물과 인류의 복잡성과 기원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신이 끼여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 둘째로 종교는 반이성적이라는 주장, 셋째로 역사를 보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해악이 저질러졌다는 주장 등이 있다”며 “현재 다윈의 자연선택으로 인한 진화를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무생물·동물·인간으로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콜린스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이 결코 신앙의 진실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실제 무신론이 창궐하는 때는 과학이 발전한 때가 아니

라.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악행을 행한 때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고 했다.

또 “콜린스는 불가지론자들에게 대해 비판하기를 ‘불가지론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 무신론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신론자는 공격적인 불가지론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지적설계론에 대해서도 비판하기를 지적설계론은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 있는 이론이라고 인정하면서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끌어들이 필요성을 상정하는 일종의 ‘빈틈을 메우는 신’을 등장시키는 이론이라고 비난했다”고 했다.

더불어 “콜린스가 믿는 유신진화론은 신이 생물들을 창조할 때 그 생명체에게 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고 믿

는다”라며 “유신진화론이 종교와 과학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기원 과학에 관한 도입 문제 해결로서 종교와 과학의 영역 논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와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적절한 용어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며 “또한, 생물 계통수 등 검증할 수 없는 생물종의 변화를 통한 진화를 주장하는 내용 등이 교과서에 담겨져 있으면 과학적이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로마서 13장 11~12절 말씀을 인용해 “무신론과 진화론에 대해 무감각 상태에서 겹 때이다. 무지에서 벗어나서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협력하여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글로벌비전 ‘40일의 기적’... 2025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

국제개발 기독교 NGO (사)글로벌비전(이사장 정연수)은 2025년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끼 금식 캠페인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2025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의 수요일인 3월 5일

부터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계속된다.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교회(단체)일 경우 전화 혹은 홈페이지로 신청하여 현금봉투와 기도카드 등 필요 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부서 내 아동들도 우유저

금통을 통해 동전을 모금하고 함께 사순절에 동참할 수 있다.

개인일 경우에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일시 기부 혹은 계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사순절 기간 자발적으로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 끼 식사비(만원)를 모

아 기부하면 해외 식량 위기 가정에게 쌀 10kg가 전달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globalvis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전화(02-3143-4001)를 통해 가능하다. 기부는 신한은행 140-012-212450 / 농협은행 355-0078-5595-73 예금주: 글로벌비전으로 하면 된다.

이나래 기자



지난해 사순절 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쌀을 받은 가정. ©글로벌비전

PRUGIO

회사보유분 20세대

파격지원혜택

(2025.01.01~01.17 한시적용)

☒ 계약금 500만원 (1차)

☒ 2월 23일 이후 전매가능

☒ 반도체클러스터 최대수혜단지

☒ 3,724세대 미니신도시 (1단지 1,681세대)

☒ 단지내 에버랜드 조정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잔여세대 마감임박

계약금 500만원(1차)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 본 제책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위탁사, 시공사, 시행사와 무관합니다.

한동대 김순권 박사, 국제옥수수재단과 몽골 화이트골드국민운동 지원

한-몽 농업 협력 강화, 몽골 축산업 위기 극복 위한 옥수수 품종 개발 및 사료 생산 지원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석좌교수이자 국제옥수수재단(ICF) 이사장인 김순권 박사가 이끄는 국제옥수수재단(ICF)은 몽골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화이트골드 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한-몽 농업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김순권 석좌교수는 지난달 20일부터 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 몽골옥수수협회 초청으로 옥수수 재배와 사일리지(발효 저장 사료) 생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식에서 몽골 국회의원 간비타르 의원은 “몽골의 축산업 미래는 옥수수에 달려있다”며 이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몽골옥수수협회는 몽골 축산업 위기를 옥수수 사료를 통해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2023~24년 겨울 '조드(dzud)'로 인해 몽골 축산의 약 15%, 94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하는 큰 위기를 겪었다. 특히 염소들의 대량 폐사는 심각한 산업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몽골 대통령 후렐 수흐는 '화이트 골드' 국민운동을 시작해 캐시미어 산업 중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몽골옥수수협회 출론체제 회장은 “중국에서 수입된 옥수수 종자는 몽골 기후에 적합하지 않아 사료 가치가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순권 박사의 옥수수 품종을 제시했다.

현재 김순권 박사는 유엔개발계획(UNDP)에 MCP 사료 생산 및 종자 보급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는 “UN의 지원과 몽골 농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결합된다면 3년 내에 겨울철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몽골 축산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캐시미어 생산량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제옥수수재단은 몽골지부장 고재형 박사와 협력하여 몽골 고산지대에서 적응할 수 있는 'MCP Highland' 품종을 개발하고, 아열대 지역에서도 종자 증식에 성공하며 몽골의 기후에 최적화된 옥수수 품종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장요한 기자

김순권 박사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출론체제 협회장이 통역 했다. ©한동대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 외국인 환자 지원 등 캄보디아 총리상 받아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에서 열린 밀알심장재단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수술 20주년 축하행사에 참석해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로부터 신충식 병원장이 훈장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캄보디아 나옴 쏘프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국왕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과 총리상을 수여했다.

캄보디아를 위해 큰 공로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수여된 이번 수상은 신충식 예수병원장을 비롯해 밀알심장재단 총재 이정재 목사(캄보디아 국왕 훈장)들에게 최고 훈장 수훈자의 영예가 돌아갔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캄보디아와 인연은 현지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이라며 “예수병원 의료진과 활발하게 협력해 캄보디아 보건으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예수병원은 국경을 넘어 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몽골과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아프리카 의료진을 초청해 매년 연수 및 교육을 진행하며 의료선교 허브병원으로서 다자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원 사회사업과를 통해 국내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외국인 국적 환자에 대한 진료 연계 및 자원 연계를 제공해 소외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수상 후 기념촬영에 나선 신충식 예수병원장. ©예수병원

“헌재, 마은혁 문제는 ‘압박’ 낙태법엔 ‘침묵’”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과연 공정한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헌재 규탄
헌재, 마은혁 문제로 崔 권한대행 압박
같은 논리면 국회에도 같은 말 했어야

60개 단체들이 연대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최근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법안을 수년 간 방치하고 있다며 헌재를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가 2019년 4월 11일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6년이 되도록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아 심지어 임신 34주, 36주 태아가 강제로 낙태되어 죽어가고 있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

다.

헌재는 지난 2019년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가 해당 조항을 2020년 연말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지난 3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것은 법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발표’라고 했

다.

이들은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 등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헌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 발표했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과 거대 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헌재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기 전에 헌재 판결을 6년째 무시하고 마땅히 입법해야 할 낙태개정법을 입법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이제 헌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탄핵 판결에 합당하지 않은 재판관들은 양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2019년 이후 아직까지도 입법하지 않은 낙태개정법을 신속하게 입법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고 이 일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회원들이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헌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어보고 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과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우크라 北포로 송환 촉구... 부상 수술비도 제공할 것”

북한인권 단체들 성명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도”

북한인권 단체들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 군인들의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부상을 입은 북한군 포로가 국내로 송환되면 그의 수술비를 제공할 의사도 있다고 한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을 비롯해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은 5일 “귀순의사 확인된 우크라 北 포로의 조속 송환을 촉구한다-한국에 오면 그의 턱 총상 수술비 전액 제공의사를 밝히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과거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페이스북(@SecurSerUkraine)

국회의원이 지난달 23~26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26)씨와 백모(21)씨를 면담한 바에 의하면, 그 중 리씨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면 ‘한국에 가

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 포로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상태다. 그는 ‘내가 포로니까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 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또 다른 포로 백씨도 ‘북한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4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하겠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들의 송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도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나라에 데려오는 등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북한이탈주민법 제3조, 제4조)”며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으

므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그들은 10년간 북무하며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가족은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로 보내면서도 ‘해외 훈

련’ ‘유학’이란 말로 속였고, 전쟁터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은 대한민국 군인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병사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또 포로로 잡힌 사람은 북한 내에서 변절자로 취급된다고 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포로의 북 송환은 인권침해 위험이 크다’고 했다”고 했다.

단체들은 “귀순포로가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도 있고, 최근 진행 중인 미국

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결과도 귀순 절차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턱에 총상을 입은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는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대로 완치될 때까지 모든 수술비를 제공할 의사도 있다. 정부는 귀순의사가 확인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는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더 신속하고 각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촉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촉구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제이디 밴스 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긴장된 회담이 열린 후 나온 발언이다.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담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진전이 다시 지연되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덧붙였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와 기독교 구호 단체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의 CEO인 그레이엄 목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간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기독일보 DB

CP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선을 비판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이며, 당시는 지금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할 임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당신의 나라는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

해 “당신은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미국의 지원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를 표했다고 답했으나, 밴스는 젤렌스키가 지난 10월 펜실베이니아에서 미국 민주당을 위한 선거 유세를 한 점을 지적했다.

회답은 결국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내보내면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원래 계획되었던 공동 기자회견과 미국-우크라이나 화기 광물 협약 체결도 무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담 후 성명을 통해 “젤렌스키는 미국의 개입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유리한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며 “젤렌스키가 평화에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이정원·권위영 목사, 예장 통합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는
전학수 장로

예장 통합 차기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로 이정원 목사(서울강북노회 주하늘교회)와 권위영 목사(서울노회 서

울숲교회, 이상 임직순, 전학수 장로(진주남노회 진주대광교회)가 등록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기 장로)는 최근 총회장립100주년기념관에서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뒤 이들을 예비후보로 최종 공고했다.

김진영 기자



(왼쪽부터) 이정원 목사, 권위영 목사, 전학수 장로

부총회장 예비후보들은 곧 열리는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아 제110회 총회 개회 60일 이전 선관위에 본등록을 해야 한다.

김진영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God First!” 신앙의 루틴이 승리를 만든다, 나성순복음 임직식

나성순복음교회 51주년 교회 설립 51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지난 2월 28일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교회 설립 51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를 거행했다.

이날 임직 예배에서 진유철 목사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승리한다”(롬 11:7)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신앙은 끝까지 완주하는 과정”이라는 말로 서두를 열고, 직분자로서 이경주의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하며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종’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으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확고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또, 좋은 주인을 바라보아야 하며, 주인이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 받을 때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업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못 간다.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대적이 나타나고 불경기를

만나고 병들 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가능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때가 와도, 주인을 바라보는 종이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그 기회가 내가 성장하는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고 커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어서, 한국의 2대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한 백낙준 교수를 예로 들며 정직과 충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있었다. 중학교를 들어갔지만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울 때에 미국 선교사 윤산은이 후견인이 되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침에 선교사님이 나가면서 마당을 쓸라고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이 소년의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미국 유학을 보냈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 교육을 일으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습관이 중요하며, 이 영적 습관들이 모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빛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육



나성순복음교회 51주년 교회 설립 51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현장의 모습. ©토마스 맹 기자



임직자들 기념촬영. ©토마스 맹 기자



임직자들이 묵화자들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체는 여전히 아직도 죄성 가운데 있다. 과거의 죄를 바라보게 만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호시탐탐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 거대한 세상의 문화, 풍조,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게 만든다.”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진 사람이 큰일을 하게 돼 있다. 저도 참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매일 매일 작은 루틴들이 지켜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 부으시고 큰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다. 사람 앞에 잠깐 보이는 반짝하는 것은 마치 성냥불 켜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큰 불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 부으심을 통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지치 아니하고 변이웃되지 않는다.”

진유철 목사는 그 영적인 루틴의 핵심은 “God First”이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도록 훈련할 때,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가나안 땅에 어떤 강한 부족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영적인 루틴이 형성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강한 자가 된다. God First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다.”

그는 예수님조차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사실을 언급하며, “직분자들은 영적인 루틴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라고 정의했다.

그는 직분자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본을 보여 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설교를 마치며, 진 목사는 개개인의 직분을 넘어 나성순복음교회의 사명에 대해 선포했다.

“저희 교회는 장자 교회이다. 전세계 선교지의 순복음교회의 장자 교회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좋은 루틴의 본을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또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 영적인 루틴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기를 소망한다.”

설교 이후 합심기도, 홍성규 안수집사의 헌금기도에 이어 이선자 목사(서남부 지방회장)와 진유철 목사의 잡례 하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약, 안수기도, 공포, 안수증 및 임직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장로 배원준, 안수집사 배재근, 최경열, 최선웅, 권사 강연정, 권현아, 김미경, 양수정, 이미선, 전성희, 조성실, 한소영, 명예권사 김연희 박수지, 백다나, 윤선마가 임직했다.

임직식에 이어 임현철 목사(순복음 북미총회 서남부지방회 직전회장)가 권면하고, 이선자 목사가 축사, 임직자 대표가 인하하고, 광고 및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맹, 주디 한 기자

‘더 브릿지 콘서트, J+’ 시애틀서 하나님 은혜 노래

‘더 브릿지 콘서트, J+’ 공연이 지난 2일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J+’는 일본 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더 브릿지 미니스트리’와 언제나 마지막처럼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C.five 위십의 연합사역’으로, 나라와 인종, 문화, 세대를 넘어 하나님 안의 하나 됨을 꿈꾸는 크리스천 문화 행사로 기획됐다.

콘서트에서는 색소폰 연주자 박광식 선교사와 건반 연주자 공민 선교사 등 연합 사역자들이 찬송가와 CCM 등 한인들에게 익숙한 곡 위주로 찬양과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노래했다. 김민선 기자



‘더 브릿지 콘서트, J+’ 공연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오픈뱅크, 크리스틴 오 최고 운영 책임자 및 박재현 최고재무책임자 임명 발표

오픈뱅크가 새로운 최고운영책임자(COO)에 크리스틴 오 전무를 임명하고 새 최고 재무 책임자(CFO)로 박재현 전무를 임명했다.

오픈뱅크(행장 민김)의 지주사인 OP뱅크(NASDAQ: OPBK)은 3일 크리스틴 오 전무를 Executive Vice President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Chief Operating Officer)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Senior Vice President 겸 회계책임자(Contoller)인 박재현 부장을 Executive Vice President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로 승진 발표했다.

신임 COO로 임명된 크리스틴 오 전무는 34년 이상의 은행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운행과 오픈뱅크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한

인은행권에서는 손꼽히는 재무 전문가다. 오 전무는 2010년 7월부터 오픈뱅크에서 은행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맡아 오픈뱅크의 고속 성장에 한몫을 해왔는데 이번 에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됐다.

오 전무의 후임으로 새로운 CFO로 발탁된 박 전무는 뱅크오브호프를 거쳐 2014년 6월 오픈뱅크에 회계책임자로 합류했으며 은행에서는 줄곧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 뱅커다. 박 신임 CFO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서쪽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 및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은 “박재현 신임 CFO의 풍부한 커뮤니티 뱅킹 및 리더십 경험은 은행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오픈뱅크 크리스틴 오 최고 운영 책임자(왼쪽) 및 박재현 최고재무책임자(오른쪽). ©오픈뱅크

며 은행의 재도약을 추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15년 동안 CFO로서 헌신한 크리스틴 오 전무를 COO로 임명하게 돼 매우 기쁘며 오픈뱅크의 역사, 사업 전략, 운영 및 직원에 대한 오 전무의 깊이 있는 이해는 새로운 역할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선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탈탄소에너지 전경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JB포럼 창립... 상임대표 손영철 목사 선임

정직한 사회 구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및 제시
정부·지역과 ‘정의·정직·정도’ 회복 국민운동도 전개

JB포럼(Justice Blessing Forum)이 최근 창립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대표에 손영철 목사(전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를 선임했다.

최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화관에서 열린 JB포럼 창립총회에서 손영철 목사는 “정직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세미나·간행물 사업, 정직한 시민 유공자 발굴, 정직성 회복을 위한 사회운동,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교류사업, 정부·지역과 연계한 ‘정의·정직·정도’ 회복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B포럼은 2022년 7월 어니스트클럽(Honest Club)으로 출범하여, 2023년 8월 ‘정직한 사회’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장됐다. 또 2025년 2월에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담론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이름으로 개편, 발전했다.

손영철 신임 상임대표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33년간 근무, 남동발전본부에서 7년간 파견 근무했으며, 광통신, PLC 분야에서 2014년 제네바 국제발명전 금상 및 특별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한국유비쿼터스학회 공동대표, PLC Korea(주) 수석연구원, 키르기스

스탄 유라시아대학교 석좌교수, 국제한인경제협력회 과학기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손 상임대표는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는 등 교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누가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2023년에는 목사안수도 받았다. 현재 귀족라프한글문화원과 강남G선교회 지도목사 등을 맡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특강을 전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6위 경제 강국임에도 국민 행복지수가 낮고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된다”며 “정치 개혁, 정부 조직 개혁, 저출생 문제 해결, 교육부 개혁, 지방자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와 사법부도 법 위반 및 예산안 처리 지연 시 처벌받는 ‘정치중대재해법’ 도입을 제안했으며, 지방정부의 복지 및 문화 정책 자율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통한 지방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아이(i)플러스 1억 드림 정책, 인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천 i 바다패스’ 정책, 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등도 소개했다.



왼쪽부터 JB포럼 서신석 기획이사, 김민수 사무총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JB포럼 손영철 신임 상임대표, 이용한 운영위원장 ©JB포럼

한편, JB포럼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오는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출발하는 아시아패밀리즈 미주한인입양인 모국방문단의 귀족라프 선교지 탐방 지원 방안, ‘인천 i 바다패스’를 인천광역시(백령도·충청남도(보령시 외연도·녹도·원산도·서산시 천수만 간월도·태안군 안면도·원산도 및 서산시 천수만 간월도·태안군 안면도)·제주도(가파도)를 연결하는 ‘귀족라프 섬 바다패스’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해안 귀족라프 미션아일랜드를 세계적인 명품 성지순례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령해저터널을 ‘보령귀족라프해저터널’로, 원산안면대교를 ‘원산안면귀족라프대교’로 명칭 변경하는 방안 등을 나눴다.

이밖에 1832년 칼 귀족라프 선교사의

동아시아 선교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향해 귀족라프 미션아일랜드 바다패스’를 구축하여 마카오-홍콩-타이완-중국 동부해안-한국 서해안(인천광역시 백령도·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녹도·원산도·서산시 천수만 간월도·태안군 안면도·제주도(가파도)-일본 오키나와-타이완-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해양 관광 및 선교 네트워크로 확대하는 방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개혁’ 방안으로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인 토지세·담뱃세 등을 국세로 조정하는 연구·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희 기자

AI 시대 맞아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한다

국제미래학회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세계교회성장연구원
한국기독교AI위원회와 공동 ‘AI 미디어선교 아카데미’ 개설

국제미래학회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과 한국기독교AI위원회가 기획하고 ‘AI미디어선교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실전 중심의 이 과정은 오는 3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 101호에서 열린다. 교회 리더 및 크리스천들이 챗GPT와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전도와 선교 및 교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을 총괄 기획한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AI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적 자원”이라며 “AI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전도와 선교 및 교회 공동체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 과정’은 먼저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의 비전과 중요성’을 주제로 AI 기술 변화에 따른 크리스천의 전도와 선교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어 챗GPT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성경과 복음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성서, 시화, 작사·작곡, 애니메이션, 웹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전도와 선교 및 교회 공동체에 활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습하게 된다.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AI미디어선교사’ 수료증과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수여한다.

교수진으로는 세계교회성장연구원 홍영기 원장,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자 AI미디어선교 아카데미 회장인 안종배 회장,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의 심현수 원장과 차경환 부원장 등 AI 및 기독교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초청돼 심도 있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영기 원장은 “챗GPT와 인공지능은 교회 성장과 선교 사역의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고, 전도와 선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세계교회성장연구원 02-2036-7623~4) 이지희 기자

선교단상

결과주의, 성과주의 좇다 실패도 앞당길 수 있어



김명휘 목사/선교사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격이 급한 편이다. 이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러나 선교지는 급한 것이 없다. 더구나 동남아시아나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지역같이 더운 나라에서는 더 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괜찮다.

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인도네시아의 모 신학교에서의 강의 요청으로 교수 사역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떤 과목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 것인지 알기 위해 신학교에 두 번이나 이메일을 보낸 지 오

래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출국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미리 알고 국내에 모든 자료가 있으니 기왕에 미리 준비해 가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출국 일자가 다가오는데도 연락이 없어, 그냥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에 도착하여 며칠이 지났어도 여전히 연락이 없어, 작점만 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그들은 태평세월이다. 급한 게 없는 것이다.

선교지는 이런 식이니 어쩌겠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빨리빨리’ 문화를 이곳에 적용하려다간 속 터져(?)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한국에서 가졌던 삶의 리듬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전을 펼 수 없게 된다. 소위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아예 버리고 현지인처럼 느긋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하루아침엔 힘들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무언가 단순한 이루어 내야겠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소위 ‘결과주의’를 말한다.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결과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 위주의 선교 방식이 우리의 선교를 망쳤다고 본다. 그러니까 결과를 빨리 보았으니 실패도 빨리 오게 마련인 것이다. 우리 지금 그 결과주의, 혹은 성과주의의 선교 때문에 쓰디쓴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른다. 속히 이루고 나면 속히 망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국의 선교사 역사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선교지에서 아버지 대(代)에서는 현지의 언어를 익히고, 아들 대(代)에서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현지 문화와 삶을 배우고, 손자 대(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교한다는 말이 있다. 이 얼마나 장기전을 펴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한국선교는 아버지대에서 당장 무언가 이루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또한 결과를 보되 내가 보아야만 된다. 그래서 아들이나 손자 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더욱 빨리 결과를 보아야 하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더 큰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은 자기의 의(義)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면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남이 하면 그것은 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義)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더욱이 선교의 리더십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대(代)에서 어떤 공적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쓴다. 자신의 대(代)에서 무언가 결과를 나타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일에 전력투구한다. 그리고 결과가 생기면 그것들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선전하기에 열을 올린다. 그래야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기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의(義)를 드러내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의(義)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의(義)를 드러내야만 하는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마6:33).

김명휘 목사/선교사(KWMA 운영이사, 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서울남교회 은퇴목사)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더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www.kps.co.kr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국민과 전쟁 중” 니카라과,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정부가 종교 단체를 체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니카라과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니카라과 탈퇴 이틀 전 발표된 보고서는 오르테가 행정부가 반대 세력에 대한 조직적 탄압에 가담하고 있다고 묘사했다고 미국의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가 지적했다.

전문가 중 한 명인 아라엘라 펠랄타는 “정부가 사실상 자국민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를 탈퇴하기로 한 결정은 오르테가 대통령이 아내인 로사리오

무릴로를 공동 의장으로 임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등 계속해서 권력을 강화하는 와중에 내려졌다.

니카라과 정부는 유엔과 미주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자국을 비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릴로는 유엔 보고서를 ‘거짓말’과 ‘중상모략’이라며 일축했다. 니카라과가 종교 단체, 특히 가톨릭교회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NGO(비정부기구) 자금 지원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해 수천 개 조직의 법적 지위가 대량 박탈되었지만, 가톨릭 기관은 2019년 학생 시위대 보호와 정

부 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가장 가혹한 단속에 직면했다. 국제기구는 니카라과에서 종교 자유가 수년간 감소한 현상을 추적해 왔다.

미국 국무부는 2019년 니카라과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특별감시목록에 올렸고, 2022년에는 ‘특별 우려 국가’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지정은 일반적으로 제재를 유발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니카라과에서 가톨릭 성직자의 임의 체포, 투옥, 추방, 교회 재산 압수, 예배자들에 대한 위협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 소재한 종교자유 옹호 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 역시 니카라과에서

종교 공동체에 대한 탄압에 대한 보고서인 ‘Total Control: The Eradication of Independent Voices in Nicaragua’를 발표했다.

CSW는 222건의 종교박해 사례를 기록했으며, 그 중 다수는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위반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보고서는 당국이 종교 행사를 계속 취소하고 대중 종교 행렬을 막고 있으며, 정부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해 지정된 경찰에 매수 보고하고, 활동 일정을 제출하고,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일부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금이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CSW 보고서는 개신교 목사 에프렌 안토니오 빌체스 로페스가 조작된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치료되지 않은 당뇨병으로 인해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톨릭 평신도 지도자인 카르멘 마리아 산즈 마르티네즈(Carmen María Sáenz Martínez)와 레즈비아 델 소코로 구티에레스 포베다(Lesbia del Socorro Gutiérrez Poveda)는 2024년 8월부터 연락 없이 구금되어 있으며 가족들에게 생명 증명서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이런 사례에 대한 보

호 조치를 요구했지만 니카라과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CSW는 덧붙였다.

CSW는 2024년 단기 및 장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임의로 구금된 사례가 총 46건이라고 기록했다.

CSW 옹호 이사인 안나 리 스타글은 “오르테가, 무릴로와 그들의 집권당인 산다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독립적인 시민 사회를 근절하고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유엔과 같은 조직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니카라과 반체제 인사들을 국내 또는 망명지에서 지원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학교 트랜스젠더 정책에 이의 제기한 영 기독 교사, 해고돼

성전환을 겪는 어린이를 긍정적으로 대하는 학교정책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기독교인 교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법원의 보고 제함으로 인해 ‘한나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 교사는 학교에서 성전환 학생을 새로운 이름과 대명사로 불러야 하며, 이성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나는 이 정책에 반대하면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우려는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학교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고, 학교가 비밀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변호사와 공유한 후 해고됐다.

그녀는 학교를 운영하는 노팅엄셔 카운티 위원회를 고소하면서 부당 해고,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나의 변호사는 재판소에 그녀의 신원에 대한 신고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심리될 예정이었지만, 패널 멤버가 온라인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리가 무산되었고, 패널에서 제외되었다. 새로운 심리는 노팅엄 정의 센터에서 시작된다.

심리에 앞서 한나는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긍정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



©Pixabay

기 위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어린이들의 복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양심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제가 조사한 신체적 증거를 통해 어린이의 사회적 전환이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받은 대우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동기는 이 아이와 이 나라의 다른 아이들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독교법률센터(CLC) 최고 경영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한 초등학교에 내재된 혼란과 허위 사실을 폭로한다. 이것은 멈춰야 할 교육 위기로 발전했다”라고 했다.

그녀는 “학교와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혐오’라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 규제 기관에 안전 위험, 어린이에 대한 위험 또는 범죄자로 보고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기독교법률센터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 멈춰야 한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미 국방부, 북한 러 추가 파병 사실 확인

“사상자 보충 수준…최전선 전력 유지 목적”
“드론 피해 경험으로 소규모 이동 전술 전환”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 사실을 미 국방부도 확인했다고 미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추가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사상된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는 수준이라며 최전선에서 비슷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일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으며 최근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한국의 유엔원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을 인용해 “북한군 2차 파병 규모는 1,500여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군 3,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있고 3차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추가 파병되는 북한군은 4500~5000명 수준으로 4000여명의 사

상자와 비슷한 숫자다.

한편 미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최전선에 복귀한 북한군의 전술이 별관에서 무리지어 달려가는 방식에서 소규모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며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에서 배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CUR) 바딤 스키비츠키 차장은 지난 3일 북한이 포병과 드론의 결합,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 전자전 및 정찰 기술 등을 활용한 현대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진 기자

백악관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는 한달간 관세 면제”

트럼프, 빅3 美 자동차 업체들과 통화 후 면제 결정
다른 품목 추가 가능성…“이야기 들을 준비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수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자동차에 한해서는 한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3대 자동차업체와 얘기를 나눴고,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한달간 면제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발효했으나, 자동차의 경우엔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해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도 미국 수출 시 당분간은 면세 혜택을 유지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동차업체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드·GM·스텔란티스 등 이른바 ‘빅3’ 자동차업체들과 직접 통화했다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다. 업계에서 대화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다른 품목들 역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여려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항상 대화에 열려있으며, 그가 미국 국민을 위해 옳다고 믿는 일을 언제나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한달이란 조건이 붙었기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한달의 유예기간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관세의 일환으로 자동차 품목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레빗 대변인은 왜 한달이라는 질문에 “상호관세가 4월 2일 발효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고 강하게 느낀다. 거기서 한 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DOOSAN

소형 건설물류장비의 세계적인 이름 밥캣은 두산의 브랜드입니다

**WE ARE
DOOSAN**



Bobcat

이재명 대표, 박형준 부산시장과 ‘북극항로 개척 사업’ 논의

지역 현안 두고 시각차…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쟁점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한 반면, 이 대표는 북극항로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항만공사에서 박 시장과 만나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포항·울산 등 동남권 발전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며 “일각에서는 민주당 대표가 인천 출신이라 부산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사 시절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바랍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구조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것은 지방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해운업은 선점 효과가 중요한 산업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동남권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 시장은 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아왔지만, 최근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왔지만, 지금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산은) 이전 문제를 강조하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는 글로벌도시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려 160만 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 법안은 지역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며, 산은 이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간절히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지사 부산항 홍보관을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시스

하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논의를 위한 협력을 원했고 시 차원에서라도 지원 의사가 있었지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대표를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을 만나기보다 이 대표를 만나기가 10배는 더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한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하고 설명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저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 시장의 발언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 시장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에 대해 언급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이 기대한 수준의 답변을 듣지 못해 실망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부산을 홀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순남을 맞는 방식으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무시하려고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용국 기자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대 변화 반영한 공정한 상속세 개편 필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70%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OECD 38개국 중 10개국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유산세는 전제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 실제로 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리”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보다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적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실질적인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올바른 상속세 개편을 통해 국민이 피파를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50조 원 규모 AI 첨단 전략산업 펀드 조성 추진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 참여형 펀드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6일 인공지능(AI)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 지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모든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한국판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 설립

을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최소 5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과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 정책금융과 연기금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펀드는 국민들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을 국민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산업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만큼, 토론 성사를 위해 형식과 방식, 시기,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진 정책위의장은 “펀드 조성 규모 추산 방식에 대해 ‘50조 원 규모는 정부, 연기금, 국민, 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와 연기금이 후순위로 출자를 통해 더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에 대해 “AI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래 기자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여론조사 결과, 양당 지지율 1%포인트 차이… 정권 교체 여론 4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수 정당의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4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1%포인트로,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5%), 인천·경기(36%), 부산·울산·경남(36%)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민주당은 광주·전라(61%), 강원·제주(42%), 서울(36%)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별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70세 이상(54%), 60대(49%)에서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40대(51%), 50대(43%), 30대

(34%)에서 앞서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5%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63%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4%의 지지를 얻으며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반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박용국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ONE OF NOT MANY.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 고환율·석유류 가격 영향 지속

먹거리·에너지 물가 상승 압력 지속… 정부, 물가 안정 총력 대응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환율로 인해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으며, 가공식품과 외식비도 오름세를 보이며 생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1월(2.2%)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초 3%대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해 하반기에는 9월(1.6%), 10월(1.3%), 11월(1.5%), 12월(1.9%) 등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2%대를 다시 회복했다.

◆석유류·식품 가격 상승 지속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으며, 특히 석유류(6.3%)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휘발유(7.3%), 경유(5.3%)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만, 1월(7.3%) 대비 상승 폭은 소폭 둔화됐다.

가공식품 가격은 2.9% 상승해 2024년 1월(3.2%)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빵(4.9%), 커피, 감치, 비스킷, 주스 등의 가격이 인상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3.1% 올랐다. 도시가스(6.9%), 지역난방비(9.8%), 상수도료(3.7%) 등이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0.4%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상승했으며,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했지만 축산물(3.8%)과 수산물(3.6%)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돼지고기(7.6%), 배추(65.3%), 굴(15.5%), 무(89.2%), 배(21.9%), 당근(59.6%)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반면 파(-31.1%), 토마

토(-19.5%), 감(-27.7%), 딸기(-6.9%), 오이(-14.8%), 쌀(-3.3%) 등의 가격은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7개월 만에 최고치

가계에서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활물가지수는 2.6% 상승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석유류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1.9%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선식품지수는 -1.4%를 기록하며 3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정부, 물가 안정 대책 강화

정부는 향후 환율과 석유류 가격 변동성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물가 안정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국제 유가와 환율 변

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축산물 가격 상승은 도축 마릿수 감소와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조정, 농수산물 비축·방출 확대, 할인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수입 원재료 가격이 중간재 및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기상 여건 변화 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나래 기자

캐나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발… WTO에 공식 제소

USMCA 무력화 우려 속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예고

캐나다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이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

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는 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 해결을 요청하며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일 캐나다산 비에너지 수입품에 대해 25%,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세 국가는 USMCA를 통해 자

유무역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협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관세 부

과 발표 직후인 4일 “WT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루 만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는 국제 무역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캐나다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두 나라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자동차에 한해서는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내 3대 자동차업체와 협의를 거쳐, USMCA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은혜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내란죄로 엮겠다” 두려움 드러내… 경제적 어려움도 토로

지인과의 통화에서

“양심선언 요구받았다” 언급…

野, 닷새 뒤 변호사 제인



TV조선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사진)이 계엄 해제 직후 지인과 나눈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내란

죄로 몰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 전날 밤, 지인과의 통화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냈다. 그

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어 “누군가) 내란죄로 엮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통화 내용을 접한 지인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가 국민의회 쪽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통화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그는 “솔직히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 선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내가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동문과 후배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후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점심 식사 후 민주당 측 인사들로부터 변호사

소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이 제기한 ‘변호사를 통한 회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변호사 소개를 해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의 동기생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출 이자 등 재정적 압박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소개가 그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곽 전 사령관의 법적 대응은 김연태 707 특임단장의 변호인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이번 보도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이 느꼈던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용국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 관객 증가세 지속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지지 다룬 작품… 관람객 반응 엇갈려



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임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힘내라 대한민국’의 누적 관객 수는 개봉 6일째인 4일 기준 3만 7,61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일절 대체휴일이던 3일에는 113개 스크린에서 222회 상영되며 개봉 이후 최다 관객 수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 동안 총 1만 781명이 관람했으며, 매출액은 1억 원을 돌파했다.

일일 관객 수 추이를 보면, 지난달 27일 4,099명, 28일 4,676명, 3월 1일 5,047명, 2일 8,401명, 3월 1만 78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평일인 4일에는 4,61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극장가에 따르면, 이 영화는 제한된 상영관 수와 적은 상영 회차에도 불구하고 3일 기준 좌석 판매율이 46%를 기록하며 ‘미키17’,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등 신작 영화 개봉 속에서도 관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박스오피스 순위도 점진적으로 상승해 4일에는 일별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현재 ‘힘내라 대한민국’은 ㈜디트릭스와 ㈜유유코리아가 각각 1개 상영관을 운영 중이며, ㈜씨네큐에서 4개 상영관, CGV(㈜에서 25개, 롯데컬처웍스(㈜ 롯데시네마에서 28개, 메가박스(㈜에서 31개 상영관을 배정해 상영하고 있다.

이 영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가 지난 해 12월 3일 발표한 계엄령을 지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개된 1분 36초 분량의 예고편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전광훈 목사, 배우최준용, 강사 전한길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화사 아리랑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내린 중요한 결정을 조명한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적은 상영 회차에도 불구하고 상영관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관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영화를 본 관람객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CGV 골든에그지수는 96%, 네이버 실관람객 평점은 9.87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 ‘왓차피디아’에서는 5점 만점 기준 2.6점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부 관람객들은 “영화를 보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다. 종북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일부 플랫폼에서는 낮은 평점이 이어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나래 기자

WeConnectScience

충전한 번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

과학이다

전기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화학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두운 밤을 지나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필립 스나이더(사진)의 기고글인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When God feels absent, what do you do?)를 4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스나이더는 메디셰어(Medi-Share)의 학습 및 리더십 개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지만, 내게 기도는 그 단어가 주는 형식적인 느낌보다 훨씬 더 편안한 것이었다. 기도가 가장 깊은 때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분이 거기 계셨고, 친구처럼 나와 대화하셨다.

그런 시간이 심어 넣은 이어졌던 것 같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게 되었다.

◆어두운 밤
성 요한(St. John of the Cross)은 《영혼의 어두운 밤(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시를 감옥에서 썼다. 이후 그는 이 시의 각 연을 설명하는 더 긴 저술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묘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

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셨던 적이 있는가? 내가 부르짖는 소리가 방의 벽이나 차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 그분의 응답은 들리지 않는 듯한 경험. 한때 믿음 안에서 누리던 위로, 안전함, 확신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의심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온 적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가?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C.S. 루이스(C.S. Lewis)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The Screwtape Letters)》에서 이를 이렇게 묘사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이 사라진 듯한 우주를 바라보며, 왜 자신이 버림받았는지 묻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사탄)의 일이 가장 큰 위협에 처하는 때이다.”

또 다른 저자인 《영적 성장의 여정(The Critical Journey)》에서 자넷 해그버그(Janet O. Hagberg)와 로버트 구엘리치(Robert A. Guelich)는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며 ‘벽(The Wall)’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이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시기이다.

찬양사역자 조슈아 레벤탈(Joshua Leventhal)은 그의 곡 ‘Upholder’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때로 침묵이 믿음을 집어삼키는 듯해. 만약 내 세상 이 온전할 때만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건 정말 신뢰일까, 아니면 그럴듯한 위장일까?”

결국 ‘어두운 밤’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단지 그분의 선하심을 ‘느꼈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속삭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글로 쓰기는 쉽지만, 실제로 경험하기는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처음 며칠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볼 힘을 주셨다. 물론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안이 있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설거지를 하며 땅바닥이 있거나, 잤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혹시 우울증일까?’ 나는 임상 심리학자가 아니지만, 몇 주 동안 공허한 겉데 기처럼 살아온 것만 같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분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부서져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

그러던 중, 우연히 존 마크 코머(John Mark Comer)의 ‘어두운 밤’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 개념이 내게 생소했지만, 너무나 공감되었다. 나는 차 한 잔을 준비하고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울었다. 강의를 통해 내 감정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을 들을 수 있었고, 덕분에 더 이상 혼자자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 상황이 갑자기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즉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순종하라.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기초로 삼아온 진리를 다시 붙잡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관대하게 배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용서하며, 금식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줄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

음 14:15)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온 우주가 하나님이 사라진 듯한 그 순간에도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일(사탄의 일)은 가장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결국,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 먼저 감동 주셔”

조현삼 목사(사진) (서울광영교회)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자기 일을 찾는 사랑’이라는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일을 들려 보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라벨을 달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 몫”이라며 “이 일에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부모 역할은 자녀가 자기 일이 무엇인지 찾는 일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은 자기 일을 찾는데, 인생의 20년, 또는 30년을 쓴다”며 “물론 일찍 자기 일을 찾아 평생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는 그걸 모른 채 이 건가 저건가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상에 일이 몇 가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일 찾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아쉽게도 세상에는 일이 많다. 그 일이 다 내 일은 아니다. 또한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다”며 “그중에 내 일이 있다. 이걸 찾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다. 시행착오도 여

러 번 거친다. 어쩌면, 지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성경을 보면, 일과 관련해서 함께 나오는 감동이란 단어가 있다. 성막 짓는 과정을 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있다”며 “감동의 역할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마음이 동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감동을 받으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고, 그 일을 하고 싶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즐겁고, 그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 일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한다”며 “오해할까 싶어 한마디 불린다. 성경에서 감동이란 표현은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때 쓰인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차 오르면 감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을 찾는 우리는 감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 먼저 감동을 주신다.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 감동이 오면 그 일을 하고 싶어진다. 그 일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감동은 우리가 자기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 휴대해야 할 키워드”라고 했다. 이어 “감동은 우리가 작업을 찾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감동을 주목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일단 주시지 않고 감동을 함께 주신다. 감동을 먼저 주시고 일을 주신다”고 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일을 듣는 순간 감동을 같이 주실 때도 있다.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일을 의논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감동을 주신다”며 “어떤 일에 의논 상대의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감동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을 주는 속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아울러 “감동과 일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의무 때문에, 전례 때문에, 관계 때문에, 먹고 살기위해 해야 하는 일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하긴 하는데, 기쁘거나 즐겁지 않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人生事)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몇 안 되고, 대부분의 삶을 기쁘고 신나게 감동대로 일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위키피디아 공동 창립자 래리 생어,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존 스톤스트리트 회장(사진)의 기고글인 ‘위키백과와 공동 창립자 기독교로 개종한 중요 이유’는?(Wikipedia’s co-founder converts to Christianity. Why is this important?)를 4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스톤스트리트 회장은 물론 기독교 세계관 센터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신앙과 문화, 신학, 세계관, 교육 및 변증법 분야에서 인기 있는 작가이자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이달 초, 위키피디아 공동 창립자인 래리 생어(Larry Sanger)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기뻐할 일이지만, 그의 회심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생어는 최근 신앙을 갖게 된 회의론자들 중 한 명이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이들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생어의 배경을 보면 그의 회심은 다소 예상 밖이다. 그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인이 된 후 나는 철저한 합리주의자였고, 방법론적 회의주의와 단호하고 엄격한 사고방식을 유지해왔다. 나는 분석 철학(analytic philosophy)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는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가 지배적이다. 한때 나는 아인 랜드(Ayn Rand) 커뮤니티 주변에서 자랐는데, 그곳

역시 무신론적 성향이 강했다. 오랜만에 나를 접하는 옛 친구나 동료들은 아마 놀랄 것이다.”

생어의 회심 과정은 지적으로도 흥미롭다. 그는 오랫동안 학계를 떠돌며 도덕성, 선과 악, 서구 문명, 신에 대한 회의적인 글을 남긴 인물이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유도 “어려운 텍스트를 정밀하게 읽는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C. S. 루이스(C.S. Lewis)가 그랬던 것처럼, 생어도 성경이 자신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해보는 실험”을 시작했고, 우주와 과학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변증학 자료를 읽으며 신앙을 탐구했다.

생어의 회심 과정은 특별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교회 출석과 기도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주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며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 교회 지도자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받지 못하고 무사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가 이와 유사하다.

결국 생어의 의문은 강한 의심으로 바뀌었고, 그는 무신론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가 자신의 중요한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그러나 결혼과 자녀 양육과 같은 삶의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신앙을 탐구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책”으로만 여겼다.

그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GotQuestions.org라는 기독교 변증 사이트였다. 그는 놀랍게도 기독교가 오랫동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지하게 신앙을 탐구한 결과, 그는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오랜 회의론보다 더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회심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준다.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변증학(apologetics)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변증학은 단순히 몇몇 신학자나 팟캐스터들만의 것이 아니라, 신앙을 탐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생어의 이야기는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변증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Summit Ministries, Worldview Academy, GotQuestions.org와 같은 단체들은 신앙에 대한 질문을 가진 이들에게 훌륭한 자료를 제공한다.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질문조차도 성경적 진리로 답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며, 이는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1946년
조용하지만 커다란 혁신이
한화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동안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세계가 함께하는 보험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 Need 연계 암보험 시스템 제공

그리고 한화생명이 이끄는 보험의 혁신은
시그니처 암보험, The H 건강보험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혁신으로
더 나은 고객의 삶을 위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혁신
오직 한화생명으로부터

한화생명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 아무리 배우고 철들고 해도 사람은 쉬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은 진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험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고 간증까지 하고 다니는 데도 결국은 이전의 모습 그대로 변화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아왔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게 맞는 말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란 것을 입증해주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데이빗(David)이라는 평범한 한 직장인 이야기를 소개해보자. 그는 원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종교를 단순한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변화’에 대해 깊이 회의적이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신앙을 가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내면은 공허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술과 친구들과의 유흥이 그의 삶을 채우

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화가 날 때마다 거친 언어와 분노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그를 교회로 초대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에 참석했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는 내내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유독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유산 하나 물려주지 않은 가난한 부모님, 학창 시절 별거 아니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평평거리며 좋은 차와 큰 집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자신을 밟고 먼저 승진한 후배, 사랑을 외치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크리스천들 등 늘 남들과 비교하며 미움과 증오, 불평과 불만의 무거운 짐들로 가득한 자신을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성경 구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며칠 후, 그는 친구가 건넨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게 될수록 점점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당신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짜라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날 이후로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욕설과 분노 대신 온유함이 생겼

고, 술로 채우려던 공허함이 사라졌다. 기독교를 비웃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 있게 말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 나를 봐. 이렇게 달라졌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 “예수 믿어도 별 변화가 없어.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 후, 즉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로 나뉘듯,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때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로 나뉜다.

예수님을 만나 전교 백성이 된 것 같은 데도 어쩌서 내 삶과 말과 인격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이다.

바울을 보라. 삭개오를 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Before)과 만난 이후(After)의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은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변화를 그들에게서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가?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다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라.

십자가에 달리신 왕, 나사렛 예수(3)

김영한 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역사적 예수 논구 시리즈

IV.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 저자들은 제 각기 개성있는 시각으로 예수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다. 마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주적인 사건이 표정으로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마 27:45). 누가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눅 23:46). 요한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리를 속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마가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막 15:34). 마가와 비슷한 어조로 마태는 증언하고 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46). 여기서 묘사되는 예수의 죽음심은 단지 무죄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고 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다.

운명하기 전에 부르짖은 예수의 최후 절규 장면은 삼위일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들 예수는 자기를 음부(陰府)에 버리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죽음을 인간 죄의 대속제물로 받으셨다. 아들은 대속제물로서 자신을 죄인 인간과 동일시 하신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음부에 버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과 일치화(identification)된 아들 예수는 음부에 떨어져야 한다. 운명하기 직전 예수가 부르짖은 절규는 성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성자의 절규이다.

아들은 전(全) 생애동안 그렇게 신뢰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버림받는 순간 아들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신 것이다. 이 절규의 순간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대한 회의론자인 실존주의 신학자 볼트만은 다음같이 해석한다: 예수의 처형은 “그분의 행적을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야기되었다. 그러하다면 그분의 운명은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의미하다. 예수께서 그것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는지, 또는 어떻게 그 것을 발견하셨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분께서 좌절하셨을 가능성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이 볼트만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의 처형은 그의 행적이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됨으로 인한 야기되었기 때문에 예수 자신의 운명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단지 그가 자신에게 다가온 운명에 대하여 좌절한 가능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볼트만의 이러한 해석은 복음서가 전승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narrative)를 단지 초대교회의 산물로 보는 역사적 회의주의에 포로되어 있다. 그의 역사적 회의주의의 시각은 복음서 저자들이 전해주는 성경적 실재주의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독특한 신학적 사건, 말하자면,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와 이러한 아버지의 버림심에 대해 절규하는 아들을 내적으로 연결하는 성경의 역사를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개혁정통신앙적 신앙에 의하면 십자가 상에서 아들이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의 신앙, 아들을 신뢰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성령이 연결하는 신뢰의 띠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는 사건은 단지 아들만이 처형되는 사건이 아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내면적으로 삼위일체적인 사

건이다. 이러한 버림심을 당하는 사건 속에서도 성령은 여전히 버리시는 아버지와 버림을 당하는 아들을 연결하는 신뢰와 사랑의 띠로서 함께 계신다. 버리시는 아버지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서 받으시는 것이다. 버림심을 당하는 아들 예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가까이 버림심을 당하시는 것이다. 자기 희생과 자기 주심이라는 사랑의 띠인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되어 있다.

아들의 자기 희생과 아버지의 자기 주심은 희생과 헌신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띠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성령의 띠는 아버지의 자기 주심과 아들의 자기 희생을 연결시킨다. 아들의 자기 희생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주심을 실현되고, 이 둘의 상호내주는 성령의 띠 안에서 수행된다. 하나님의 본질은 자기를 주시는 헌신이요 자기 희생으로 죄값을 치루시는 정의로운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절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구약의 시편 22편의 시작 구절: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a)와 관련시키고(시편 22편 1절-5절 해설,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 880.) 예수의 십자가 상의 절규를 참된 메시아적 외침으로 이해하였다. 십자가 상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는 자신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인류와 동일시 하시며 이들의 절규와 곤궁과 삶의 감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을 수용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예수의 절규하시는 기도는 모든 시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 전체 이스라엘과 오늘날 각종 전쟁과 분규로 시달리고 있는 중동의 난민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강제수용소에서 애소(哀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기도, 그리고 미래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성도들의 절규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계속>

대한민국의 체제전쟁(3): 2030의 등장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지난해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래 탄핵정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하였던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의 가장 두드러진 사태가 이 나라의 2030 세대가 스스로 깨어나 탄핵반대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일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치 못하였던 사태입니다. 계엄령 이전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은 의당 좌편향 생각을 하기에 탄핵 찬성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 밖으로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법 재판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뜨겁게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는 밤 10시경 그들이 탄핵반대 시위를 열고 있는 자리에 나가 대학생 나이의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이유로 추운 날씨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의 물음에 그가 답하였습니다. “저

는 윤석열 대통령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그의 대답에 내가 충격을 받고 감동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따를 수는 없잖습니까. 북한식 공산주의를 따를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런 말입니까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은 겨레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노라는 마음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고마운 일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표할 일입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성취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



정태희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정태희 목사의 삶과 리더십

2025 을사년의 태양이 힘 있게 떠오른 지도 어느새 두 달이 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한 해를 아쉬움으로 보내면서 새로운 결단과 기대로 새해의 문을 연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갖은 결단은 작심삼일로 끝난다. 용두사미조차 아니다.

“용두”가 되려면 일 년 열두 달 중 최소한 한 달은 결단을 실천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어느 탁월한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묘년 우리 개인과 가정, 나아가 우리가 리드하는 조직의 발전과 성취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창 11:7-8에는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던 방자한 인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린 하나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 여자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크는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약 21마일의 바다를 수영으로 건너고자 시도하였다. 1950년대 초 그는 13시간 이상 수영하여 도버 해협을 두



번이나 건넌 기록 보유자였다. 그러나 그날 캘리포니아의 앞바다는 도버해협과는 달랐다. 15시간을 수영하였으나 목표지점인 롱비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바다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로 가득했다. 지칠 대로 지친 체드윅크가 수영을 포기하고 자신을 따라오던 배에 올랐을 때 전 미국은 이를 안타까워했다. 그 이유는 체드윅크가 수영을 포기한 지점이 롱비치에서 불과 800 미터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서 체드윅크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롱비치 해안을 볼 수 만 있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드윅크는 안개로 인해 도착지점을 볼 수 없었다.

존 맥스웰은 목표를 도착지점에 비유한다. 리더가 조직의 현재위치에서 도착지점을 볼 수 있다면 그곳에 이르는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이 목표가 갖은 파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선언하셨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7절). 80만 성도라는 경이적 교회성장을 이룬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 이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일 항이 “목표를 설정하라”이다. 새해

우리의 성취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분명한 목표의 부재이다.

하나님이 방자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한 결과는 무엇인가? 인간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7b)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흠어졌으며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었다 (8절). 라틴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인 커뮤니케이션의 라틴어적 뜻은 “함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조직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비전) 함께 각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협력)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필수 요소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커넥션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리더는 조직원과 연결되고, 조직원을 또한 상호 연결된다.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처럼 조직을 와해시키는 탁월한 방법은 없다.

리더가 커뮤니케이션을 게을리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의도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은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았음에도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신 밖에 없다. 우리는 인간과 일하고 있다.

인간은 한번 말을 들어서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 번 말해주어도 딴 소리를 한다. 나아가 상대방이 나의 말을 한번 경청하게 하려면 나는 그의 말을 열 번 경청해 주어야 한다. 연설에는 지식과 기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청에는 겸손과 인내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기술이 아닌 태도이며 인격이다.

올 한 해도 별다른 성취가 없는 그저 그런 한해로 만드는 두 가지 비법이 여기에 있다. 첫째, 어차피 용두사미조차 되지 않을 바엔 차라리 목표를 정하지 말라. 둘째, 조직원 모두가 당신의 의도를 익히 알고 그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의사소통하지 말라. 일 년 내내 이렇게만 해 볼 수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성취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표를..

社 說

72년 전 믿음의 지도자, 해안·결단 덕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실전과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으로 일룩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가 과연 굴욕적인 미국의 휴전 압박을 견뎌낼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마우 정상회담은 작금의 국제정세가 힘의 논리와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휴전을 압박하며 공세를 취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가 2주 만에 패했을 것”이라고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실인자에게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라고 받아치는 등 이날 정상회담은 기존의 국가 간 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의 연속이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바이든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외교 기조를 드러낸 게 원인이다. 미국이 러시아 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전쟁을 마무리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고 광물협상 카드를 들고 날아온 것이다. 그런데 전쟁 지원은커녕 휴전 시 최소한의 안전보장요구마저 거부당한 채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마우 정상회담의 모습은 처음부터 다른 정상회담과는 달랐다. 보통은 격식 있는 인사와 함께 탁담을 나누며 외교적 수사가 오가는 게 관례지만 미국이 손님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을 시뮬레이션으로 삼을 때부터 그런 기대가 사라졌다. 비공개가 원칙인 정상회담 광경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의도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을 떠안게 됐다.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침공에 사력을 다해 버텼지만, 미국이 모든 지원을 끊고 등을 돌리면 더는 버틸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다.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카드는 미국 대신 유럽의 지원을 계속 받으며 전쟁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요구한 휴전을 받아들여 듣지 둘 중 하나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침공한 영토를 영영 되찾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런 곧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영웅에서 졸지에 패장으로 추락하고 3년간 전쟁터에서 피 흘린 군인과 국민의 희생도 물거품이 되는 걸 의미한다.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자유 민주주의 진영 간의 연대가 아무 소득도 없이 와해되는 데 따른 후유증이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는데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남의 나라 영토를 침략한 러시아의 불법행위를 국제사회가 용인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작금의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은 강대국에 둘러싸

인 약소국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결국,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이다.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불과 7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와중에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 거의 똑같은 휴전 압박을 받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 또한 젤렌스키와 비슷한 수모를 겪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이 길어지며 인적·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우리 정부에 휴전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휴전하고 미군 병역을 철수할 경우 북한이 재차 남침할 것으로 보고 휴전에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이른바 ‘북진통일론’이다. 끝까지 북으로 밀고 들어가자며 휴전에 반대한 이 대통령을 미국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강제 구금해 축출할 계획까지 세웠겠나. 이런 내용은 기밀 해제된 이승만 대통령과 더글러스 딜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 기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꺼내든 화심의 카드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 조야에서까지 반대했던 이 조약은 이 대통령이 2만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겠다고 맞서는 등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한 덕에 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천문학적 가치의 희토류 광물을 놓고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이 천연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70여 년 전 우리나라는 미국이 탐낼만한 지하자원이 나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유리한 조건도 없었다. 그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오늘의 ‘한미동맹’의 기초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성사시켰으니 믿음의 지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한미상호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와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제 우리 후손이 앞으로 누대(屢代)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약 체결로 미군이 상시 주둔하게 되면서 북한이 남침을 꿈도 못 꾸게 됐고, 이로 인해 전쟁의 잣데미 위에서 경제발전과 산업부흥을 이루게 됐으니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이다.

러시아와 함께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처지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 국가들 사이에서 함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가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이들 또한 종북·친중 세력이다. 72년 전 기독교 신앙에 투철한 믿음의 지도자의 해안과 결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운 밑바탕이 된 것처럼 한국교회의 각성과 결단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독교일보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전화내선 02-739-8119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10-5169-8291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10-5169-8291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든한국민의
드든한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상담치유 봉사 하여 드립니다.

심리적으로 사기 당하는 병 마음의 병
치매와 건망증 기억상실증 스트레스
근심걱정 억압과 분노 공황장애
우울증 노이로제 정서불안 불안신경증
신경과민증 초조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집중이 안되고 안절부절하고
기슴이 두근거리고 우울증 율화증 환병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병
뒷골이 뻐기고 손발이 저리고 입이
자주 마르고 예민하여 잘 놀라는 병
심리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속 시원히 상담하여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의학지도교수 (MANSON)
목사 이종운
문의: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 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향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경기 예술 신학원 개원 [학부]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개원 목적을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철학박사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 씨프르작, 이강일 연출
출구없는 방 (주연) / 세익스피어 작, 오원로 연출

학 과	연극신학과
지 원 자 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 집 인 원	약간명
원 서 지 원	25년 1월부터
개강및수업	3월 첫주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 수업 졸업 후 목회자가 되기를 하던 개혁신학교 신학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지구촌복음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 사랑의교회 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검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입고 누르기만 하면 후끈~후끈~ 추위걱정 끝!

GOSKA

겨울철 출퇴근, 등하교, 군대에서... / 실외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
겨울 캠핑을 즐기시는 분... 낚시, 골프, 등산가실때...

실속있는 보온, 더 얇지만 따뜻해진 소재

보온 발열조끼

특별할인
파격행사

개인 및 단체주문 환영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파격행사가 ▶ 98,000원(батери 포함)

색상 :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사이즈 : 90(S), 95(M), 100(L), 105(XL), 110(XXL)

확실한보온성 / 간편한 버튼 / 세련된 디자인

▲ 세련된 실속 주머니

▲ 단계를 전환버튼

▲ 뒷쪽까지 브랜드마크

▲ 더 얇아진 열모습



3단계 온도조절 (저온, 중온, 고온)

방풍, 발열, 보온 순환원리

생물방수 기능


온도조절 3단계 ▶ 고온(적색) 45℃ / 중온(백색) 35℃ / 저온(청색) 25℃

※ 배터리의 시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문의 / 010-5260-9517 신한은행 110-195-067840 예금주 : 태영

겨울철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일하시는 분들께...




made in
NORWAY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원활한
혈액순환!




하루
2캡슐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항산화
건강까지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신간

신간

3일,

크리스천투데이

저자 이효준 장로

추천사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아에 비하면 다른 모든 소원은 부차적이요 종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는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라는 이 소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때에만 그래야 합니다.
성도는 또 더 많은 은사와 은혜를 얻고 싶어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도록” 하기 위한 소원에서 나온 것이라야 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 이 동기 이외의 다른 어떤 동기에 의해 마음이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아망으로 불타게 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이 싸늘하게 식어갑니까? 그때마다 이것이 여러분의 동기를 붙잡아 주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분에게 의존하십시오. 슬픔은 자아를 생각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한 목표요 최고의 기쁨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나를 편안케 하시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원 속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젊을 때 하나님을 송축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케 해주셨습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신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을 많이 갖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 가졌던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 여러분의 지식이 자라고 있습니까? 더욱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까? 병에서 회복되어 슬프던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변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의 향로에 숯과 유향을 더 많이 집어 넣으십시오.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송영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봉사와 늘어나는 거룩함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찰스 스필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바ible지식IN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 합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며,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동적 수단이 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훈계하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며(데살로니가전서 5:17) 따라서 기도를 계속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스스로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일종의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여호와께서 동산에 이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 여호와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죄로 하나님과 끊어졌고, 이들과 하나님의 교제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기도하지 않음”은 죄였으며, 이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절친이라고 말하며 여러분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었던 우정조차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없는 약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의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레 주님과 교제하려는 열망을 가집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라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시편 5:3). 기도하라는 성경의 명령에는 굉장한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시편 145:18).

그리스도는 기도 생활의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며(누가복음 3:21; 5:16; 9:18, 28; 11:1 참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누가복음 11:2-4). 만약 인자도 스스로 기도할 필요를 느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보라는 선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야고보서 5:16). 바울은 종종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으며(에베소서 6:19; 골로새서 4:3; 데살로니가전서 5:25), 자기 자신도 그들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에베소서 1:16; 골로새서 1:9).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당연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사무엘상 12:23). 사무엘에 따르면, 기도하지 않음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하기 쉬운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디모데전서 2:1).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5:44).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을 포함해 모두를 기도로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훈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훈계하시거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2:2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선택한 거친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마태복음 6:10), 우리가 가진 뜻과 고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41은 또 다른 경고를 줍니다. “시침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싼 시험으로부터 시야를 흐리게 해 죄를 더 짓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조명과 지시를 따라서만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게 됩니다(로마서 8:26-27 참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며 하나님과의 연결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기도로 가득한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갓켄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Isaiah 40:29 NIV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s the power of the weak.

- the weary: 지친 자들
※ [the + 형용사(weary, weak)]는 '~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짐
- increase: 강해지다, 강하게 하다
- the weak: 약자들

이사야 40장 29절
여호와께서는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약자들의 힘을 강하게 해주신다.

Psalm 102:17 NIV
He will respond to the prayer of the destitute; he will not despise their plea.

- respond to: ~에 응답하다
- destitute: 궁핍(窮乏)한, 극빈한
☞ the destitute: 궁핍한 자들
- despise: 경멸(輕蔑)하다
- plea: 애원(哀願), 간청

시편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그들의 애원을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카카오토리, 영어성경 독해 연습

A B C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F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139)

로마서 11장 10절

10. May their eyes be darkened so they cannot see, and their backs be bent forever.”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과 같으

니라
“God gave them a spirit of stupor : 하나님

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주

셨다 함
; eyes so that they could not see : 보지 못할

눈과
“and ears so that they could not hear : 듣지

못할 귀를
; to this very day.” : 오늘날까지

▶중요한 단어, 속어

as ~과 같이. stupor 마비, 무감각, 망연

자실, 멍청함. a spirit of stupor : 혼미한 심

령
so that-not can(could) : ~가 할 수 없도록. to

this very day 오늘날까지

바울은 이사야 29:10절의 말씀을 여

기서 인용한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

신은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

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

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사 29:10). 이

사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

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능력을 빼앗아

버리셨던 것이다.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갖지 않은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

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신명기 29:2-4

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

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화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

나니
3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

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2 Moses summoned all the

Israelites and said to them: Your eyes

have seen all that the LORD did in

Egypt to Pharaoh, to all his officials

and to all his land.
3 With your own eyes you saw

those great trials, those miraculous

signs and great wonders.
4 But to this day the LORD has not

given you a mind that understands or

eyes that see or ears that hear.

이사야 29:10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

신은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10 The LORD has brought over you a

deep sleep: He has sealed your eyes

(the prophets): he has covered your

heads (the seers).

에스겔 12:2

2 인자여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

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

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

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2 “Son of man, you are living

among a rebellious people. They have

eyes to see but do not see and ears to

hear but do not hear, for they are a

rebellious people.

에베소서 4:17-18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

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

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령에서 떠

나 있도다

17 So I tell you this, and insist on it

in the Lord, that you must no longer

live as the Gentiles do,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18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and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due to the

hardening of their hearts.

▶해석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

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

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9절

9. And David says: “May their

table become a snare and a trap, a

stumbling block and a retribution for

them.
“And David says: : 또 다윗이 가로되

“May their table become : 저희 밥

상이~~되게 하옵시고
“a snare and a trap : 올무와 덫과

; a stumbling block and a retribution

for them. : 거처는 것과 보응이

▶중요한 단어, 속어

May their table become 기원문, table

식탁, 탁자, 리스트, 표. stumble

넘어지다, 실족하다.
block 장애물. retribution 보응, 보복,

징벌. snare 덫, 올가미, 속임수,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 덫으로(올가미로) 잡

다. trap 함정, 올가미, 덫, 속임수, ~을

덫(올가미)로 잡다, trapper 덫을 놓는 사

람, 사냥꾼.

다윗의 이 말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 이상으

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더 지독하게 대

적하는 내용이었다.

사편 69:21-23

21 저희가 술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22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

시며 저희 평안이 닳이 되게 하소서

23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

시며 그 하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1 They put gall in my food and gave

me vinegar for my thirst.
22 May the table set before them

become a snare; may it become

retribution and a trap.
23 May their eyes be darkened so

they cannot see, and their backs be

bent forever.

또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 자기가 로마에

간 연유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일 자

기를 붙잡아 로마인들 손에 넘겨줄 때

다 음과 같이 말했다.

사도행전 28:25-28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흠여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

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

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

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

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

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

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

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

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

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25 They disagreed among

themselves and began to leave after

Paul had made this final statement:

“The Holy Spirit spoke the truth to

your forefathers when he said

through Isaiah the prophet:
26 “Go to this people and say,

“You will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you will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27 For this people’s heart has

become calloused; they hardly hear

with their ears,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28 “Therefore I want you to know

that God’s salvation has been sent to

the Gentiles, and they will listen!”

▶해석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

와 덫과 거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

옵시고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이 땅에서 통용되는 모든 재물에 관한 3가지 지혜

본지는 [묵상 책갈피] 코너를 통해 신앙도서에서 은혜롭고 감명 깊은 내용을 선택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 땅에서 통용되는 모든 재물은 어떤 것이라고요?

첫째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

다. 나사로는 실제로는 아주 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지니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은행에 집어 넣은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재물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많이 있

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

지만 아들이 만약 상용자라면 최고급

달팽이 요리가 목구멍으로 잘 넘어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병든다면

아무리 맛있고 값비싼 음식이라 할지

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많이 가

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로, 현세의 재물은 불의한 것이

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

렸듯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

다. 현세에서 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

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불의한 재물이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세의 재물이 어째서 남의

것이라고 불리옵니까? 이는 그것이 근

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

다. 청지기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이 바유를 결코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

다.
내가 성경 학교에 다닐 때 누군가가

선생님께 “이 바유의 의미는 무엇입니

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해 구절 중의 하나

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별한 설명

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

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남의 것이라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재물은 많고 영원하

며 참되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

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청

지기입니다. 그러나 올 세상에서 우리

의 신분은 모든 것에 대한 상속자입니

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청지

기가 아니고 소유주가 될 것이라 말입

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지극히 작고, 불의

하며, 남의 것인 재물을 사용하여 크

고, 참되며, 너희 자신의 것인 재물로

만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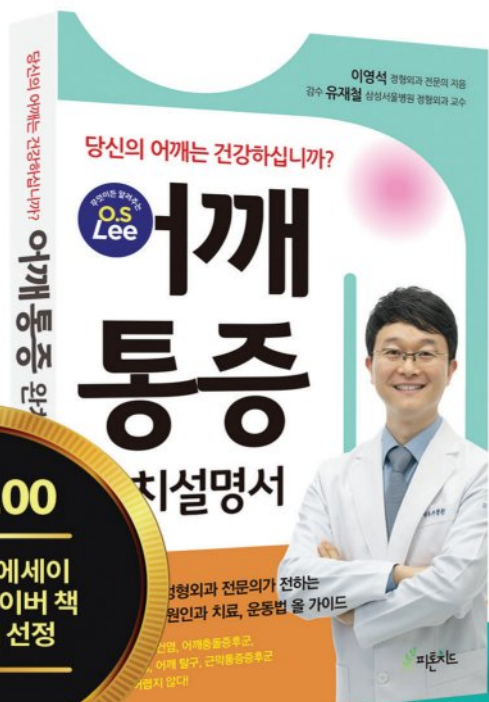
후안 까를로스 오르피즈, ‘내 것이 아

닙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만나 P151~152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가정 ‘척’ 하지 말자

바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여유 있게 처리할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섰고, 당신의 머리에 성령을 부으시므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미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므로 당신에게 이미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슬픈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슬픔을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담당시키셨고, 성령을 통해 희락이 넘쳐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게 담당시키셨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한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 그들의 꿈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을 이루신 성령이 당신 안에서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피곤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게 하시므로 당신이 이미 나음을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 속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넘치는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쁨부음이 없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 기쁨부음이 이미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가시관을 씌우므로 당신의 모든 어리석음을 담당시키	가난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가난을 짊어지우셨으므로 당신은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연약함을 실제로 담당시키셨고, 성령을 통해 이미 당신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당신과 같은 역경을 거쳤고, 결국 모진 세파를 거치면서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고백하지 마시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향유옥합

그저 안녕이라고 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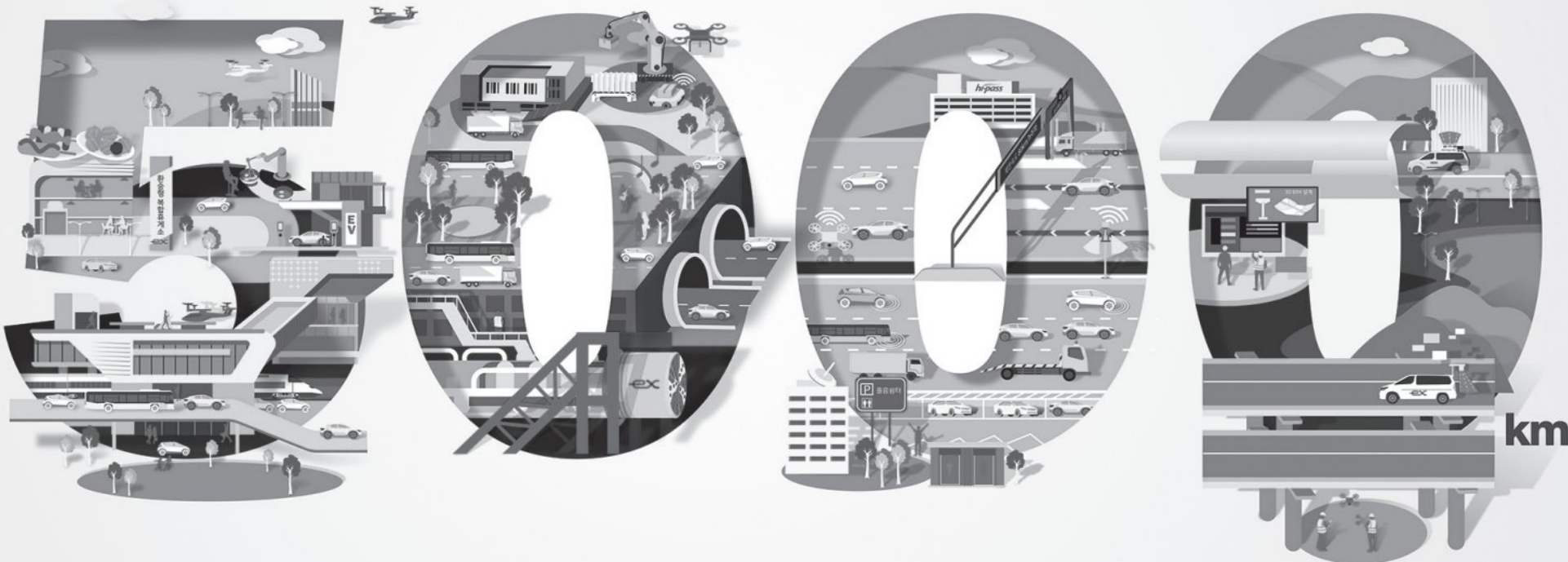


한 수도자가 모든 제자들을 한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슬픈 일이 아닌 것을 알지 않는가?”	자나치게 추모하지 말게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에서 추모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갈 곳이 있는 아가 그 갈 곳으로 가는 것이 어찌 그토록 슬퍼할 일이겠는가?	그것은 사람을 무지함에 빠뜨리는 것이요 미신을 퍼뜨리는 일일세
그러자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그저 이러한 일이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나의 죽음을 통해 왔다가 가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알도록
		그저 안녕이라고 노래하며 손을 흔들어 주길 바라네.”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교회오빠

하나님이 혼드시면...

순식간에 도시를 마비시킨 대지진으로 고통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지진에 대비하여 설계되어지고 무사고 40년을 자랑하던 신칸센 열차마저 탈선시켜버린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의 위력을 실감케 하네요.	케홀과 강포와 늑탈.. 주변 국가를 정복하며 온갖 악행으로 국력을 키워온 나라를 향해 나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갖춰진 무기들, 그 명성과 펼쳐진 번영이 천만년에 이를 부귀영화로 여겼지만 임박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치부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대적자로 자처하셨습니다.	선언된 심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것 외에 그것을 막아낼 어떠한 자구책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나훔3:5)	그들의 산성을 견고케 하고 벽돌로 그 집을 든든히 세워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그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만과 악행과 더러움.. 그 죄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부귀영화와 명성으로 가려진 그들의 수치를 한꺼번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나훔3:12)	오려려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돌아오라는 긍휼의 메시지임을 알고 그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야겠지요.
	마치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지듯 하나님을 경멸하고 악한 수단과 더러움으로	익은 열매가 흔들어대는 손길에 줄줄이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혼드시는 심판에 낚여질 나라와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무기력함과 악함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창골산 봉목사



한국도로공사 창립 55주년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한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생활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매일 500만대가 이용하는 행복한 고속도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ex 한국도로공사

지휘자의 의무



김영희

리허설은 지휘자의 음악 만들기를 위한 세 개의 임무(스코어 연구, 리허설, 연주) 중 두 번째의 임무이며, 음악의 조립 라인 중 제품의 공급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다.

첫 번째 임무인 스코어 연구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에야 앙상블을 리허설 할 수 있다. (스코어 공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포디움 위에 서지 마라)

이 리허설 시간은 지휘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연주가 시작되는 첫 시간이기도 하다. 이 리허설 시간 안에 음악의 모든 테크닉적인 것과 예술적인 면을 준비하여야 하며, 지휘자의 해석에 의한 음악을 앙상블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연주를 통하여 청중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이제 리허설이 시작되면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활짝 열어 앞에 있는 연주자들과 음악 만들기의 첫 팔을 들어 올려야 한다. 완벽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연주하려고 하는 작품을 최대한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리허설을 진행하는 시간들은 때로는 심각하고, 힘이 들며, 때로는 화가 치솟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좌절감이 원인이다. 그러나 침착해야 하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오케스트라(합창단) 또는 나쁜 오케스트라(합창단)는 없다. 다만 좋고 나쁜 지휘자만 있을 뿐이다.

지휘자가 리허설을 하기 전에, 먼저 연주하기 위한 스코어를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must know the score!) 그리고 무엇을 리허설 해야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지휘자 자신의 음악적인 해석을 연주자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지휘자는 멜로디의 최고점이 어디인지, 그래서 어떻게 음악의 흐름을 조정해야 하는지, 반대로 어디에서 멜로디를 리듬의 몰아치는 힘에 굴복시켜야 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또한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다양한 음색과 질감을 듣지 않고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스코어의 각 부분에서 만들어 내고 싶은 소리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상상 속에 음악이 무르익고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휘자는 연주자들 앞에서 리허설 준비가 된 것이고, 비로소 이들 앞에서 지휘 할 수 있는 것이다.

지휘자는 리허설에서 정확한 시작(attack)과 종결, 인토네이션, 음악적인 악절, 사운드의 밸런스, 다이내믹 등등에 대해 확실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것들도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된다. 가령 플루트의 아래 음역에서 힘으로 누르는 듯한 억지 사운드, 옥타브 상의 음정의 떨어짐 이라든가. 오보에의 중간 음역에서의 날카로운 사운드, 음형이 악기에서 악기로 이어질 때의 다이내믹 라인, 불협화음에서 인토네이션을 주는 법, 내성부에 감추어져 있는 재미있는 프레이즈를 부각시키는 것, 지속되는 음정에서의 적절한 다이내믹 등의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앙상블 그룹과의 실제적인 리허설에 앞서 자신의 지휘 제스처도 리허설을 해보아야 한다. 어떤 지휘자는 이 말을 인정



하지 않겠지만, 지휘자의 제스처도 자신의 테크닉이다.

청중들은 음악을 귀로 듣지만 한편으로는 눈으로 듣는다. 제스처가 명확하고 자연스러운지 거울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리허설은 지휘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연주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리허설 테크닉은 연주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되어야 한다.

다음은 연주자들이 지휘자에게 바라보는 것들을 적어보았다.

첫째, 지휘자의 긴 추상적인 해석, 감의 같은 설명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 지휘자의 정확한 바통 테크닉 아래 연주하기를 원한다. 특히 음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다운 비트를 절실히 원한다.

셋째, 지휘자가 원하는 모든 음악적인 내용들, 즉 템포, 프레이징, 분할(subdivision), 다이내믹 등을 바통에 의해서 보기를 원한다.

넷째, 지휘자의 얼굴이 연주자들을 보며 음악의 무드를 그 얼굴에서 읽기를 원한다.

다섯째, 좋은 연주자 그룹은 지휘자가 음악의 밸런스를 항상 조절해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들도 좋은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연주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중요한 부분에서 정확한 큐를 주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휘하는 지휘자만의 새로운 음악적인 해석을 원한다.

지휘자는 요구사항은 들어주고 자신의 음악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휘자는 리허설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리허설의 최종 목표는 좋은 공연을 하는 것인데, 어떤 지휘자들은 리허설 자체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려 한다. 또 어떤 지휘자들은 공연을 위해 모든 소모적인 감정 요소를 자제하고, 사무적인 자세로 리허설에 임한다. 방법이야 어떠하든지 리허설의 목표는 자신의 마음의 귀로 들었던 스코어 안의 음악적인 모든 것을 이상적인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는 그의 연주자들에게 또한 청중들에게 어떻게 훌륭한 파노라마를 보여줄지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즐거움을 유발시키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리히터(Karl Richter, 1926-1981)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 음악을 만드는 즐거움,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청중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휘자 자신이 참된 음악적 목표를 향

해 집중하고 있다면, 지휘자는 항상 열정적으로 리허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휘자가 항상 인토네이션, 앙상블, 정확한 리듬, 예민한 음가(note value) 같은 음악적 테크닉에 대해서만 강조하면 리허설이 매우 지루해 질 것이다. 음악적이고 예술적인 효과만 강조하라. 그리고 그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리허설이 시작되면 무엇이든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며,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연주자들은 지휘자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또한 연주자가 리허설을 통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테크닉을 습득하도록 리허설 시간 안에 완전히 준비시켜야만 한다. 연주를 위하여 연주자들은 음표 하나하나에 완벽을 기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연주에 참여할 수 없다. 사실, 이후에 있을 공연에서 제대로 연주하는 것보다 먼저 리허설에서 제대로

로 연주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지휘자는 앙상블과 함께 처음 리허설을 하는 시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연습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사실 지휘자는 리허설 때나 연주 중에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 그러나 리허설의 초기에는 신체적인 지휘 동작보다 듣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지휘자의 움직임이 많을수록 듣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전문 연주자들은 그들의 지휘자들을 멜로디 지휘자, 리듬 지휘자, 템포 지휘자, 다이내믹 지휘자 등과 같은 식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휘자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자신의 음악적인 시각을 넓혀야 하고,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의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다른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균형이 깨진 연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에는 리허설 계획과 시간 분배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출처 : 현동혁 '오케스트라 지휘'

◆지휘자 김영희

서울장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피아노전공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코치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연세대학교 음악학과 박사과정으로 합창지휘전공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 서울장신대에 출강하였으며, 대전 시립 청소년 합창단 트레이너를 역임하였다. 현재, 분당크로스 남성합창단 지휘자, 새문안교회 한기립 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 교육대학원 출강 예정이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2:1-12

기록교신자의 많은 이들은 히브리인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가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동방박사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들이 온 길과는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 길이 물리적으로만 다른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부르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대부분

이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을 떠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브람은 고향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그는 그의 사는 지역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도 바꾸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집을 떠나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거주했다.

예수님은 그의 공사역을 시작한 후 집이라고 불릴 많은 장소를 한 번도 가졌던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소유의 대부분을 팔고 가족을 떠나 900마일이나 떨어진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다.

어렵고 때로는 두려워도 성령 안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언제나 나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나의 방향을 바꾸었다.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을 한 장소로만 제한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도]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여사시 당신을 섬김에 있어서 언제나 일어서서 나갈 준비가 되어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Genevieve and Hermon DeHoog

크리스찬 교육과 교회음악 등 교회의 여러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Genevieve는 지역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그들은 Georgia 주의 Sugar Valley 에서 종교수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찬양한 표

하나님 지으신 끝 없는 하늘과
드넓은 바다와 높은 산들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너를 위한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달빛마음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월드비전, 사람엔터테인먼트와 ‘2025 기브어나이스데이’ 캠페인 전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사람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2025 기브어나이스데이(Give a nice day)’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화째를 맞이한 전쟁피해아동을 위한 ‘2025 기브어나이스데이’ 캠페인에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공명, 아이린, 윤소희, 정건주, 최희진이 홍보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쟁 속 아이와 후원자를 이어준다는 매개체의 의미가 담긴 ‘하루팔씨’를 착용하고, 일상이 무너진 아이들의 당연한 하루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월드비전 ‘기브어나이스데이’ 캠페인은 분쟁 및 취약지역 아이들에게 무탈하고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자는 의미를 담아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실제 구호 현장 속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3가지 색상의 난민등록 팔씨를 모티브로 제작된 ‘하루팔씨’가 전달된다. 파란색은 피난민으로 등록된 아동, 노란색은 영양실조, 성폭력 피해, 장애 등 가장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 흰색은 보호자를 잃은 아동을 의미한다. 특히 ‘하루팔씨’에는 후원자 자신이 전쟁피해아동을 지키는 몇 번째 보호자인지 알 수 있는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의료, 영양, 교육,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쟁 및



월드비전과 사람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전쟁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2025 기브어나이스데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월드비전

취약 지역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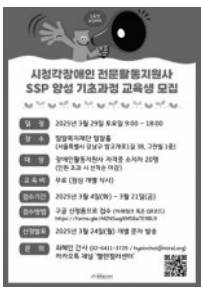
공명 월드비전 홍보대사는 “저는 4만번째 보호자인데 하루팔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전쟁 속 아이들이 기억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이번 기브어나이스데이 캠페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명환 회장은 “전 세계 아동 5명 중 1명은 전쟁 속에서 한번뿐인 어린시절의 일상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당연한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한 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월드비전은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헬렌켈러센터,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보건복지부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센터장 홍유미)가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기초과정 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편리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 유형과 정도별로 재할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실된 장애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이 필수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에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역량을 갖춘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양성,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모집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로, 시청각장애인 활동지원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20명을 모집하며, 인원 조

과 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대상자로 선정 시 오는 3월 29일 서울 강남구 밀알복지재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시청각장애의 특수성이 반영된 의사소통 방법, 보행 안내 교육 등이 이뤄진다.

밀알복지재단 홍유미 헬렌켈러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사회에서 더 불안이 살아가며 통합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헬렌켈러센터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최강창민, 새학기 맞아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

초록우산과 함께



초록우산은 최강창민의 기부금 5,000만 원을 초록우산의 ‘폼다’ 캠페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그를 동반하기 멤버 최강창민(사진)이 새학기를 맞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의 보육비 및 교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심리검사 및 상담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2015년부터 ‘폼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최강창민은 초록우산 고액기부자 모임 그린노블클럽 116호 회원이다.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를 시작으로 2020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아동 가정 지원 등을 위한 나눔

을 이어오고 있다.

최강창민은 “선풍기 가득해야 할 새학기를 외롭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부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기 회장은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데 감사 드린다”며 “초록우산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감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5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 김주홍) 30 TV강단 (성찬 오원호)	30 성지가 좋다 국내편(109회) - 전남 여수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30 생명의 말씀-이필산 목사(청문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5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 이정기) 30 새에덴의 언약 (소강석)(876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85회)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 심령의 치유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20 말씀의 샘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샘터 왕성교회 김요나 목사	30 휴먼네트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79회)	00 포도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문훈 목사)
	8:00	20 신앙에세이 30 [생방송] 오늘의 정월	20 명사들의 명강 50 신사랑 프로의 원포인트 골프레슨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196회) - 창세기 49장	00 비전메시지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9:00	2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00 예수 더 라이프 50 리브미션	00 CGN 비전특강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	10 새롭게하소서(10983회) - 이민웅 쇼호스트	00 믿음의 리액션(18회) - 음식 4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오전	10:00	20 지금, 선교해YOU	20 말씀의 샘터 여의도침례교회 국영호 목사 50 말씀의 샘터 옥길교회 임재호 목사	2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00 CBS NEWS 10 20 더 콜링(99회) 50 살롱 살롱(37회)	00 힐링토크 회복(701회) - 탈북 때 만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방송인 윤설미)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
	11:00	10 [생방송] CTS대담 한국교회를論하다	20 말씀의 샘터 총정교회 옥성석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1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50 사건 21 사시기 견드리기	00 율포원(613회)	00 소문난 성경교실(438회) - 오택현 교수: 첫 번째 12강 왕들을 평가하다 (허스기야 VS 이사야) 30 선교는 지금(19회) -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본영) 30 TV강단 (관리현성결 조준철)	20 성지가 좋다(472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교회 50 말씀의 창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더 메시지 시즌(말씀편)	00 주일예배실황 공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잘 믿고 잘 사는 법(274회)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나엘 기도회(20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고통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톡(60회) - 성경시대 법과 제도
	14:00	00 [생방송] 콜링캣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 특별간중 2024 다나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00 말씀의 힘 (신일 배요한) 30 새롭게하소서(11254회) - 다나엘 김 목사 1부	00 THE 금금(1회) -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어야 하나요? 40 여루살렘 데이트라인(465회)
오후	15:00	40 7000미라클 - 스페셜	00 오 자유여	0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239회) - 요한복음 42장	00 2025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집회 - 주일찬양예배 1부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6:00	30 생명의 말씀-김미영 목사(원주중부교회)	00 다큐 더 로드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샘터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79회)	00 내 삶의 행복(145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샘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30 말씀의 샘터 분당선교교회 윤귀현 목사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10 찰떡밥 - 시운철 40일 묵상(3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835회) 50 행복다이어리(507회)	00 말씀의 창 (아산큰빛교회 김성진 목사) 30 말씀의 창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장종현 총장 30 더 메시지 시즌(말씀편) 40 더 초전 [미리보기]	00 행복플러스 30 한성워십 50 더 메시지	00 TV강단 (약대 송규의) 50 2023 한소망교회 감사특박	00 TV강단 (약대 송규의) 30 이름 목사의 말씀의 맥(4회)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핫초엽(1회) -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25회)
저녁	19:00	0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정희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00 말씀의 샘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샘터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50 2023 한소망교회 감사특박	00 TV강단 (강남중앙 장천영) 30 TV강단 (베다니 박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윤차복 목사(영동포비전교회)	00 힐링스토리 10 주일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CBS 비전특강 -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인치유 50 CBS 교회소식(988회)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3회) 40 복음강단 (영통영락교회 고요섭 목사)
	21:00	00 CTS 특집다큐 50 CTS 뉴스	10 GOODTV 저녁의 기도 2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50 GOODTV 뉴스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196회) - 창세기 49장 50 성경포럼 - 이것이 금금하다(96회)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00회)
	22:00	20 오직한길 40 [워킹몬더바이블] 성경의 땅	10 오론교회 금요철야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휴먼네트	00 CBS NEWS 10 20 율포원(612회)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65회) 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준 목사의 CTS 금요철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GOODTV 특별간중 2024 다나엘 기도회	00 [컨퍼런스] 예수님과의 대화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CBS 금요철야예배 (새에덴교회)(838회)	10 금요철야예배 (수령로교회)
	24:00	00 콜링캣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로잔대회 10대 이슈 한국교회 선교 전망 좌담회	10 새롭게하소서(10983회) - 이민웅 쇼호스트	00 새에덴 철야예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
	1:00	00 오늘의 정월 50 위대한 발견들	10 우리들의 지식살롱 40 GOODTV 시네마 마가복음 4부	00 교육선교 국제컨퍼런스 40 [말씀] 권혁만 목사(씨드교회)	00 산위의마를 말씀 (김영준)(228회) 50 사랑의 말씀 (오정현)(989회)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택 목사) 50 리바이즈 워십
	2:00	10 TV찬양예배	00 GOODTV 특별간중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40 이영훈 목사의 말씀과 함께(548회)	00 말씀의 창 (필그림성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감병삼 목사의 365 매일나눔 (주님은 나의 최고봉)(115회)
	3:00	00 지금, 선교해YOU 50 이영훈 목사의 힐리송	00 매일 주와 함께	00 Cross Conference 2021 30 [말씀] 홍인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10 새롭게하소서(11253회) - 김혜령 교수	00 선교는 지금(198회) -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0	00 감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20 오늘의 양식 30 CTS 경건예배 45 곡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말씀의 샘터 원남교회 권기용 목사 30 장상길 목사의 신령의 정아비	10 [말씀] 박신웅 목사(열바인은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김지철)(3632회) - 고린도전서 32장 50 CBS 교회소식(988회)	0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대표님!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다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Brity Copilot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SAMSUNG SDS